



새로운 조경수 ④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자귀나무 -

무와 왕자귀나무가 생육하고 있으며 특히 왕자귀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생육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자귀나무와 왕자귀나무에 대해서만 기술코자 한다.

있다. 자귀나무는 양수(陽樹)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내한력과 내음력(耐陰力)은 약한 편이지만 내공해력(耐公害力), 내염력(耐鹽力), 내건력(耐乾力)은 강한 편이다.

○ 종류와 생육특성

자귀나무(Albizza)는 열대, 난대, 온대지방을 중심으로 약 50여종이 생육하고 있고 이들 수종 중에는 낙엽활엽수도 있고 상록활엽수도 있으며 또 관목, 소교목, 교목 등 성장상태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는 자귀나

자귀나무는 내한력(耐寒力)이 비교적 약한 편이어서 우리나라 중부이남지역의 산록과 계곡에 분포생육하고 있으며 왕자귀나무는 자귀나무보다 내한력이 더 약해서 우리나라 남서 해안(목포유달산)과 일부 도서(흑산도 등)에 자생하고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자귀나무의 꽃은 우리나라 여인의 푸른 바탕의 흰복치마에 공작무늬를 수놓은 것같은 느낌이 들뿐아니라 부채를 활짝 펴들고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는 부채춤을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공작새



▲자귀나무의 개화전경

〈표1〉 자귀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본명	영 명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DURAZZ	넴노키	Silk tree
왕자귀나무	Albizia coreana NAKAI	테우센넴노키	Silk tree

꼬리와 같은 부드러운 잎과 균형잡힌 아름다운 수형(樹形)은 조경수로써의 관상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자귀나무는 여타 수종과 달라서 꽃이 피어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꽃이 지고 난 후에도 아름다운 수형을 감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시사철 조경수로써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무의 생육특성상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수형을 형성하게 되므로 특별히 전정(剪整)을 하여 수형을 다듬을 필요가 없다.

이 나무는 단순한 외관상의 관상가치 보다는 지식의 도야 인성개조 환자의 건강회복 등 정서적인 순화가치가 높은 나

무로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의 정원조성에 빼놓을 수 없는 조경수며 특히 도로및 철도 변의 나지(裸地), 절개지, 자갈밭 등에 식재를 하여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 번식 및 양묘방법

자귀나무의 번식은 종자에 의한 실생묘 양성법으로 번식한다. 즉 9~10월에 꼬투리(열매)가 익어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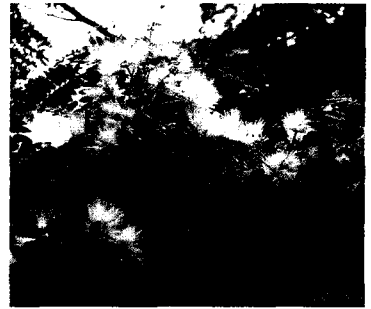
하여 그늘에서 말려 꼬투리가 벌어져 종자가 흐르면 각지를 제거하고 바로 파종을 하든가 젖은 모래와 섞어서 저온 저장 및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끄집어내서 파종한다. 너무 익은 종자나 너무 마른 종자는 파종한 당년에 발아가 되지 않고 다음



▲자귀나무의 꽃과 화서



▲자귀나무의 열매



▲왕자귀나무의 꽃과 화서
◀왕자귀나무의 개화 전경

해에 발아가 되므로 파종 전에 발아촉진처리(發芽促進處理)를 하여야 파종한 당년에 발아한다. 발아촉진처리 방법은 수온(水溫)이 70°C 정도 되는 물에 종자를 3분 정도 담가서 열탕(熱湯)처리를 한 후에 끄집어

내서 냉수에 담가 식힌 후에 파종한다. 파종은 4월 상순에 1㎡당 10g(15cc) 정도의 종자량을 뿌리고 그 위에 1cm 정도 두께로 복토를 한 다음 벚짖을 얇게 깔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면 되지만 건

조의 염려가 있을 때는 벚짖을 소여물처럼 짧게 썰어서 얇게 깔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두었다가 종자가 발아하기 시작하면 비닐을 걷어주면 된다. 1㎡당 발아기대 본수는 120본 정도이고 2회 정도의 솟음을 실시하여 60분 정도를 잔존시킨다.

조경수

〈표2〉 수종별 특성

수종별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자귀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활엽수 관목 및 소교목으로 수고 5~10m까지 자람 · 줄기의 수피는 평활하고 회갈색임 · 잎은 호생(互生)하고 우수2회 우상복엽(偶數二回羽狀複葉) · 복엽의 길이는 20~30cm · 한 개의 복엽에 우엽(羽葉)은 5~15쌍 · 한 개의 우엽에 15~40쌍의 소엽이 착생 · 소엽은 혁질(革質)이고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음 · 소엽의 길이는 6~15mm, 나비 25~40mm · 잎의 표면은 농녹색이고 뒷면은 회백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6~8월에 담홍(淡紅色)으로 피 · 화서는 가지 끝에 약 20개 가량의 꽃이 모여 두상화서(頭狀花序)를 형성함 · 화서경의 길이는 3~4cm이고 화경은 없음 · 꽃은 양성화(兩性花)로 해질 무렵에 피 · 열매는 9~10월에 담갈색으로 익음 · 열매는 긴 콩깍지 같으며 길이는 10~15cm, 나비 1~1.8cm 정도됨 · 한 개의 꼬투리에 5~6개의 종자가 들어 있음 · 종자는 납작한 타원체로 길이 5mm, 나비 4mm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난온대 ·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 표고 50~7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이 잘 드는 양지로 비교적 건조하면 서도 토심이 깊은 계곡 및 산록
왕자귀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가 흑갈색이며 흰 반점이 있고 · 소엽이 자귀나무보다 큼(길이 20~45mm, 나비 5~20mm) · 기타특징은 자귀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6~8월에 백색으로 피 · 기타 꽃과 열매의 특징은 자귀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유달산 및 남해도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귀나무와 같음